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12월 10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7장 30-33절

설교제목 : “그 십분의 일은”

십일조의 기원을 살펴보면, 십일조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십일조입니다. 더불어, 야곱의 십일조입니다.(창 28:20-22) 이처럼 아브라함과 야곱의 십일조의 개념은 자신의 삶과 재산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재산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것이라는 주재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확증하십니다. 레위기 저자는 십일조를 하나님의 것, 여호와와 성물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토지에서 난 것과 가축 모두를 하나님께 십일조로 드리도록 지시합니다.(레27:30,32) 땅의 십분의 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십분의 일은 산술적 의미의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십일의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수기에서 십일조는 다음과 같이 확장이 됩니다. 민18:20-32에 보면, 레위인에게 주는 십일조가 있습니다.(레18:21) 그리고 레위인은 백성들이 드린 십일조에서 다시 십의 일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생산수단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생산할 땅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일조는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펼치는데 필요한 사람을 위해 십일조가 사용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구약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다른 생업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목회자의 사례는 생계비입니다.(참고, 눅10:5-7/고전9:4-14) 더불어 신명기의 십일조는 성소에서 잔치 비용으로 사용되는 십일조입니다.(신14:22-27) 절기의 십일조 혹은 축제의 십일조라고 합니다. 절기 혹은 축제의 십일조의 특징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처음난 소와 양을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신14:23) 그런데 신명기는 또 다른 십일조를 이야기합니다. 3년마다 드리는 십일조가 있습니다.(신14:28-29) 3년 마다 드리는 십일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의 십일조입니다. 이처럼 민수기와 신명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십일조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십일조는 대략 소득의 20% 정도에 이릅니다. 이처럼 십일조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신앙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기자의 고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말3:7-12)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 동안 가난한 땅을 되찾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려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향 근채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마23:23) 한마디로 향료식물에 대한 십일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엄격하게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철저한 십일조 생활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십일조 정신을 버린 것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십일조의 형식도 중요하고, 십일조의 정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십일조가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근거가 십일조는 구약의 율법 즉 의식법에 해당하므로 새 언약의 시대에 그 의식법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구약의 십일조가 예수 안에서 완성된 율법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약의 십일조의 규례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일조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십일조가 갖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과 재산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것이라는 주재권의 고백입니다. 십일조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개념입니다. 십일조는 주재권의 고백입니다. 또한 구약의 십일조가 갖는 목적과 정신은 신약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용합니다. 십일조를 통해서 전문목회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교회를 운영해 가야 합니다. 선교자금으로 쓰이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십일조 폐지의 근거로 신약성경에 십일조에 대한 명령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십일조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또한 사도들이 순교 이후에 교회의 역사에서 헌금에 대한 언급이 ‘디다케’가 가장 오래된 기록인데, ‘디다케’에서는 십일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말물’을 교회에 바치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말물을 바치라’는 내용을 통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십일조를 교회에 바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런 통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인 이레네우스, 오리게네스, 키프리아누스도 십일조를 언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제도 교회로 공인된 이후에 십일조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일조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에 이르러서, 십일조는 국가의 민법상 징수차원으로 전화됩니다. 따라서 십일조가 세속적인 조세납부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로써 유럽 교회는 십일조를 교회가 거두지 않고, 국가가 십일조를 거두어 해당 지역의 교회에 전달하는 전통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은 십일조를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중요하고 당연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가령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오면서 교회가 국가가 엄격하게 분리되면서 서유럽에서는 종교세 혹은 교회세라는 명목으로 조세로 전환되면서 교회에 직접 내기보다는 자율 세금 방식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따라서 십일조 폐지론자들은 유럽이나 기타 다른 나라 교단에서 십일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리상으로 중세든 현대든 십일조는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십일조의 문제는 십일조를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십일조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하고, 십일조를 어떻게 십일조의 정신대로 잘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라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십일조의 정신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성경에 나타난 십일조의 기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레위기에 나타난 십일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민수기에 나타난 십일조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4) 신명기에 나타난 십일조는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오늘날 십일조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고, 그 근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날 십일조의 문제는 십일조 정신을 어떻게 이 땅에 구현해 내는가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온전한 십일조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가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